

## 제목 : 마리아의 기도

본문 : 눅 1:46-55

시작찬송가 : 179(새185), 318(새528), 350(새320)

헌금찬송가 : 204(새288), 432(새382), 511(새314)

마리아의 기도는 라틴어 성경의 첫 글자를 써서 'Magnificat'(마리아의 찬가)라고 교회에서 불러왔습니다. 이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태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증거대로 앞으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기도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 ①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에는 '찬양' 이라는 말은 '광대하심' 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눅 1: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 ②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태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구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와 같은 기적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보다 '죄에서 구원' 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눅 1:47-48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있다 일컬으리로다

눅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 ③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비천한 죄인 신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 2. 마리아 기도의 특징

- ① 마리아는 공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공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눅 1:50      공활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히 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 ② 마리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속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구속의 약속이 변치 않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눅 1:54-55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활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 ③ 마리아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인본주의 의식은 사라집니다. 교만에 빠졌던 사울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겸손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은 우리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눅 1: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저는 자유사회의 초석(礎石)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사회와 희망사회의 근본적인 이념은 종교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항상 우리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무슬림, 힌두교, 혹은 무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은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항상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전직 대통령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구원의 필요함을 아는 미친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은 제 대통령 직무에 여러 방면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파도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있었고, 믿음은 저에게 앞으로 전진 하는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각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낙관적인 시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을 말해줄 수 있나요?' 대통령 회고록의 첫 문장입니다. 이 말은 제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여보,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을 말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물론이지, 말해줄 수 있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고 술이 제 삶의 소중한 것들, 친구들, 중요한 저의 가족들과 저의 신앙에서 저를 떨어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전직 미국대통령으로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술을 끊게 된 사연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믿음을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길이 똑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있었지만 저는 때론 그 길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제가 술을 사랑하고 방황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길을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님을 초대하셨습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제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권위적으로 가르치시기 보다는 온유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제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보다는 성경을 통해 앞으로 전진 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저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저는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논리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삶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고, 힘들어했고, 넘어졌습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을 만난 후 저는 술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이란 하나의 여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저는 노력했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였습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읽기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 오늘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신문이나 읽어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신문이나 읽고 한국축구팀 소식이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제가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훈련을 통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그냥 말로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구절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가는 길에 큰 뜻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량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지만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한마디 :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창립기념주일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5. 뉴욕 할렐루야 대회와 한국교회 8.15 성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6.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명성교회